



[보도자료]

GE라이팅, 인테리어 친화형 'GE 엔진 (Engine) 스탠드' 출시

- 항공기 엔진을 닮아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디자인
- 자유로운 각도조절 기능과 사용이 편리한 원터치 점등버튼
- 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넓은 범용성

2015년 2월 6일, 서울 - GE 라이팅 코리아(대표이사 송명민)는 실내 인테리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GE 엔진(Engine)스탠드'를 출시했다.

GE 엔진(Engine)스탠드는 항공기 엔진을 디자인 요소로 차용한 유니크하고 모던한 스탠드로 GE 라이팅 코리아의 2015년 야심작이다. 광택 처리된 스탠드 헤드 부분은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는 사용 용도에 따른 최적의 조명 각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GE 엔진(Engine)스탠드는 복잡한 조절 버튼 대신 원 터치 점등 방식을 채택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항공기 엔진을 닮은 디자인의 독특한 모양과 귀여움으로 공부방에 잘 어울리는 동시에 광택 처리된 헤드로 실내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침대 옆 협탁 등 집안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제품의 전체 높이는 50cm며 전원 버튼이 붙어 있는 베이스의 길이는 15cm, 헤드 부분의 지름은 12cm로 책이 많이 펼쳐져 있는 책상에서도 사용하기 편하며 거실은 물론 크기가 작은 침대 옆의 협탁 위에도 무리 없이 올려 놓을 수 있다.

특히 GE 엔진(Engine)스탠드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부방이나 거실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다양한 용도를 고려해 설계된 제품인 만큼 램프는 GE 라이팅의 26 베이스 타입(E26)의 LED 램프(5W~11W)와 형광램프(12~15W) 중에서 선택 사용 할 수 있다.

LED 램프(전구색)는 거실용, 형광램프(주광색)은 공부용으로 잘 어울린다.

기존 LED 스탠드의 경우 LED 칩(Chip, 빛을 내는 부분)과 스탠드가 일체형 구조기 때문에 칩(Chip)이 망가지면 스탠드 전체를 교체해야만 했다.

반면 GE 엔진(Engine) 스탠드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램프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램프 수명이 다하면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돋보인다.

GE 엔진(Engine)스탠드는 흰색과 검정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대형 마트에서 약 3만원 대 초반의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

GE 라이팅은

GE 라이팅은 1879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GE의 모체이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램프를 발명한 이후 130년 동안 다양한 조명제품 개발을 선도해왔다.

GE 라이팅은 백열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고압 방전램프, LED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조명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 조명 기업이다.

GE 라이팅은 크게 LED 부문, 조명 부문, 조명 기구의 세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LED 부문은 건축조명, 산업조명, 디스플레이 조명, 일반조명을 포함하며, 조명 부문은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방전램프, 자동차용 램프, 특수 램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램프 류와 점등 보조장치인 안정기를 생산 중이다. 조명기구 부문은 건축용, 산업용, 스포츠용, 도로용 제품이 포함된다. GE라이팅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은 6시그마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다. 전 세계에 5개의 R&D 센터와 함께 60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EO는 메리로즈 실베스타 (Maryrose Sylvester)이다.

GE 라이팅 코리아는

GE 라이팅 코리아는 1988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삼성과의 합작투자법인인 GE 삼성조명(주)을 거쳐 2008년 12월에 GE 라이팅 코리아로 자리매김하였다. GE 라이팅 코리아는 GE 라이팅의 60여 개의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2만여 종의 조명 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조명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한국시장은 물론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문의

GE라이팅 코리아

권재은 과장 (T: 02-6201-4337), jeaeun.kwon@ge.com